**이즈미 시키부 와카 석탑**

이즈미 시키부(976~1036년경)는 궁정 여관으로서 헤이안 시대(794~1185)의 유명한 문학자입니다. 이즈미 시키부는 특히 5-7-5-7-7의 5구 31음절로 이루어지는, 일본 고유의 시인 와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탑은 이즈미 시키부를 기려서 그녀의 와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남기기 위해 123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석탑에 새겨진 와카는 1002년에서 1005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설 것 같네. 멀리까지 비추소서 산꼭대기의 달이여

이 와카는 자주 사용되는 시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고통과 구제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이지만, 쇼쿠 대사 자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당시 가인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칙찬(천황이나 상황의 명으로 편찬된 책) 『슈이와카슈』에 수록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귀족사회에는 와카를 받으면 답가를 보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즈미 시키부의 시에 감동한 쇼쿠 대사는 즉시 답가를 보냈습니다.

해는 들어가고 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네. 황혼에 내걸려 비추는 불법의 등불이여

사원의 기록으로는 이즈미 시키부가 사망했을 때, 그녀가 존경하는 쇼쿠 대사가 보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